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7

학교라는 장치와 웃음의 역학
-염상섭의 「지선생(池先生)」을 중심으로-

황 지 영*

요 약

본고는 염상섭이 1930년에 발표한 「지선생(池先生)」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 조선의 학교 안에서 규율에 대한 복종과 저항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선생의 모습을 살필 것이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벌이고, 학교에서 조선인 교사들이 점차 퇴출되는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지선생은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수업 시간에 술을 마신 후 졸기를 일삼는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학교에 마지막 남은 조선인 선생인 그를 애정과 연민을 갖고 대한다. 매일 학교에 가장 먼저 출근할 만큼 성실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규율에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지선생은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학교의 규율에 균열을 내는 기능도 담당한다. 무기력해 보이는 지선생의 기이한 행동들이 근대식 학교, 더 나아가 식민지 제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촉매제로 읽힐 수 있는 이유는 그 행동들에서 파생되는 웃음 때문이다. 그 웃음은 소설 속의 학생들에게뿐 아니라 이 소설의 독자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염상섭, 지선생, 학교 규율, 웃음의 저항성, 감정의 전염

* 충남대

목차

1. 식민지 조선의 학교와 교원의 역할
2. 위기의 기호들 : 한학자, 구식양반, 망령
3. 지선생, 복종과 위반 사이의 경계인
4. 금지된 만세와 민족의 징후
5. 웃음의 전염과 '종치기'의 역설

1. 식민지 조선의 학교와 교원의 역할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는 학교, 감옥, 공장 등 근대적 제도들을 식민지에 도입하여, 식민지인들을 식민지적 질서에 편입시키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은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국 일본과 식민권력이 추구하는 방식이 명확히 드러났다. 식민지 조선에는 식민권력이 관리하는 '관학(官學)'과 서양 선교사나 민족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사학(私學)'이 병존하였다. 식민권력은 '사학'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규제하면서, '관학'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을 식민화의 프로세스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1)]

식민권력의 교육정책은 1911년에 공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의 목적은 구한말의 실력양성운동과 각종 사립학교를 정리하면서,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식민권력의 주도하에 재비치하는 것이었다.[2)] 하지만 1차

1) 김진균·정근식, 「식민지체제와 근대적 규율」,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10~21면.

조선교육령은 교육기관 상호간의 연속성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고, 1922년에 제2차 교육령이 만들어진 후에야 대학까지 포함하는 학제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사실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교육이 도입되자마자 인기를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1910년대에는 식민권력이 주도하여 학교의 학생들을 강제로 모집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순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보통학교보다는 서당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초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증가하면서, 보통학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920년대 초반까지도 근대식 학교보다 서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교 교육이 '자립정신'과 '규율적 습관'을 기르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근대식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민성의 형성, 신체의 건전한 발달, 개성에 맞는 교육, 교과목간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 중에서 식민권력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작업, 즉 '국민성의 형성'이었다. 식민권력은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서구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조선인 교육에서 일본의 문화를 강조하는 국민주의 훈육을 강화하였다.[3)]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학교는 근대국가 및 식민권력의 출현을 알리는 장치이자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였는데, 학교의 식민지적 형

---

2)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4, 21~23면.
제1차 조선교육령의 학제 구성에서의 쟁점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명칭 문제이다. 둘째 전문교육 단계의 설치 문제이다. 셋째 의무교육의 실시나 입학연령, 수업연한, 학교급간의 연결, 실업학교의 성격 등에 관한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넷째 사범교육과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분명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학제가 구성되었다.

3) 김진균·정근식·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김진균·정근식 편(1997), 위의 책, 81~89면.

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식민화의 과정을 은폐하였다. 학교가 군대나 경찰, 법원 등처럼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장치와 달리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분류[4]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이다. 학교의 주된 기능은 국가의 의도를 억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권력은 학교를 통해 바람직한 국민상을 유포하고, 그 상을 제작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때 중요하게 부각됐던 것이 바로 '교원'의 기능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근대적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모범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식민권력은 교원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세계관도 관리의 영역 속에 포함시켰다. 1916년에는 교원이 교육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교원심득(教員心得)」이 조선 총독부 훈령 제2호로 발포되었다. 이것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지시한 문서였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교원이 학생들에게 일본의 국체를 인식시키고 조선에서 식민지 교육정책 시행의 전위로서 교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식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바람직한 교원들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 평가받았다.

> 제1조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 제2조 실용을 주지로 삼아 지식과 기능을 교수해야 한다.

4)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358~365면.
알튀세르는 폭력을 통해 기능하는 억압적 국가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구분한 후, 전자가 경찰, 감옥, 법원, 군대, 국가원수, 정부, 행정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후자는 종교, 교육, 법률, 조합 문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제3조 강건한 신체를 육성해야 한다.[5]

「교원심득」이 공표되고 나서 우사미(宇佐美) 내무부장관은 총독부 기관지에 훈령 발포의 목적과 각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충효'나 '실용'을 강조하면서 '강건한 신체'를 육성하는 것은 "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인물" 또는 "유용한 지능의 개발에 힘써 국가의 수요에 적용하는 실용적 인재"[6]를 양성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심득」은 겉으로는 충효나 실용, 강건한 신체를 강조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식민통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충량한 국민을 육성"[7]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식민권력의 통제방식을 학생들이 체화하게 만드는 매개로서 기능하였다.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교원의 역할은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식민권력에 순종하는 식민지인을 제작하는 것이었다.[8]

---

5)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299~300면, 재인용.
「교원심득」에 따르면 교육의 임무를 맡은 자는 언제나 국민교육의 대본(大本)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인용된 3개조에 유의하여 노력분투하여야 한다.

6) 우사미 내무부장관, 「교원심득에 대하여(1-9)」, 『매일신보』, 1916.1.16-26.

7) 김경자・김민경・김인전・이경진, 『한국 근대초등교육의 좌절-일제강점기 초등교육』, 교육과학사, 2005, 221면.

8) 박혜진, 「1910・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17면.

2. 위기의 기호들 : 한학자, 구식양반, 망령

식민지시기에 학교 교육은 근대성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안에는 조선인들을 식민화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역사학이나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을 고찰한 연구들은 교육 관련 법령이나 학제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규율화의 정도나 식민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이 상당수이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학교와 그 연관 요소들을 다룬 연구들[9]은 한편으로는 역사학이나 교육학과의 연구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을 창작한 작가마다의 독특한 지점을 분석한다.

1930년에 발표된 염상섭의 「지선생(池先生)」은 분량이 소략하고 인물들 사이의 구체적인 대립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단독으로 다룬 학술논문은 전무한 형편이고, '염상섭 연구'를 표방한 논문이나 단행본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 경우에도 작품의 핵심 내용만을 간단히 언급한 수준에 그치거나, 염상섭의 소설 중 제목이 유사한 「E선생」과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마저 존재한다.[10]

---

9) 조윤정, 「이태준 소설에 재현된 식민지 조선의 학교」, 『상허학보』 28, 2010.2, 11~52면.
최지현, 「근대소설에 나타난 학교- 이태준, 김남천, 심훈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 함일돈(咸逸敦), 「창작계의 이삼고찰-최근 일년간의 작품과 작가3」, 『동아일보』, 1931.2.1.
""池先生"은 中學校敎室을 背景으로하야 封建的遺物가티된 老先生께對하야 敬慕절반 揶揄절반의 現代中學生氣分을 取扱한 作品이다. 學生들의 揶揄가좀지나쳐 先生으로하야금 큼직한過失을犯케하였스며 그過失은 學生들의 同盟休學에 어떤 信號가되엇다. 作者는 무슨까닭으로 池先生을 이렇게 窮地에 집어느엇는지는 下回를 全部 略해버렸슴으로 永遠히 알길이업거니와 左右間이作品도 題材에 잇서

김종균은 기존 연구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길게 이 작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선생의 행동에서 "당시 현실에 불만스런 마음을 지닌 인간(人間)의 한 전형(典型)"과 "민족애(民族愛)"[11]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김윤식은 「지선생」을 "조선어 교사의 기묘한 행태를 통해 식민지 생활 속의 조선어 및 그 문화의 처지를 풍자한"[12] 작품이라고 평가하였고, 하종일은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구식 양반 '지선생'에게서 "계몽 정신의 퇴색"을 읽어낸다.[13]

이처럼 '지선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식민제도에 대한 무기력과 순응의 징표로 읽히기도 하고, 저항의 징후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선생이 근대식 학교의 규율에 '과잉 동일시'하는 모습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웃음'을 통해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식민화의 프로세스에 균열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근대 학교의 목표가 체제를 지속시키는 '규율 주체'의 생산이라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 교원과 학생들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식민지 체제에 흡수됐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염상섭은 「지선생」을 통해 이러한 예상에서 빗나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1930년에 염상섭은 퇴임을 앞두고 조선어로 한문을 가르치는 '지선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식민지 조선의 근대식 학교 제도와 그

多少異彩를 보이고잇다."
함일돈은 염상섭의 「지선생」과 「E선생」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다. 선생의 과실로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나타나는 작품은 1922년에 발표된 「E선생」인데, 이러한 내용을 「지선생」을 분석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11) 김종균, 「염상섭의 1930년대 단편소설」, 『국어국문학』 77, 1978.6, 194~195면.

12) 김윤식, 『염상섭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8면.

13)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複數)의 근대'」,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75면.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들을 구현한다. '지선생'은 수시로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일본인 교무주임의 감시를 두려워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술을 마신 후 졸기를 반복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 학교의 '터주대감'이며, 학교에 단 한 분 남은 조선인 선생이다. 그는 이전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한시(漢詩) 대결을 할 정도로 한문 실력이 뛰어나다. 또한 학교에 사는 사환이 학교의 문을 열어 놓으면 매일 맨 먼저 학교에 도착할 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선인 선생이 하나둘씩 쫓겨난 뒤에도 지선생만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 지금 이 학교에 이대로 계신 것은 (……) 예전 이또오 통감과 시를 많이 지어서 이또오 통감이 괄세를 못한다니까, 조선 선생은 다 내쫓아도 지선생만은 못 내쫓는 것이다.
>
> 하지만 이제 내년 새학기부터는 조선어 한문 과목이 없어지고 한문도 일본말로 가르치게 된다니까 일본 '가나'도 모르시는 지선생님도 얼마 더는 못 다닐 것이다.[14]

그런데 작가가 지선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모두 근대적 세계관과는 배척되는 것들이다. 지선생은 조선어로 한문을 가르치는 '한학자'이자, 이토 히로부미와 한시 대결을 했던 '구식 양반'이다. 또한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침을 뱉었던 원세개를 인용하며 교실 바닥에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망령'난 노인이다. 이처럼 근대적 사유에서는 배척하려고 하는 다수의 기호들이 지선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용어들로 등장한다. 한학자, 구식 양반, 망령이라는 기호들은 당시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뜻했던 '근대'와는 거리가 있는, 즉 '구시대적 속성'을 대변한다.

근대 교육은 모든 구시대적 산물을 해체하려 했지만, 500년 동안

14) 염상섭, 「지선생」, 『염상섭 전집9- 초기단편』, 민음사, 1987, 338면.

지속되었던 유교문화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문과 조선어, 그리고 일본어를 함께 배우는 것이었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된 후에는 '국어=일본어'가 주당 10시간으로 늘었고, 조선어와 한문은 주당 6시간 정도 실시하였다.[15]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칠 때는 항상 국어와 연계하도록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16] 했다.

「지선생」에는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에 밀려서 학교에서 한문뿐 아니라 조선어의 수업 시간도 줄어드는 상황과 내년 새 학기부터는 한문도 일본어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가 교편을 놓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이 지선생의 성격 창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지선생은 학교라는 근대적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시대적 속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근대 제도 혹은 식민권력과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복종'과 '위반' 모두를 경유하면서 자신의 위태로운 삶을 보존해 나간다.

3. 지선생, 복종과 위반 사이의 경계인

「E선생」은 1922년 9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회에 걸쳐 『동명』에 연재되었다. 당시 박종화는 이 작품이 극히 평범하고 통속적인, 한때 웃음 좌석에서 이야기할 만한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염

15)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5, 98~100면.
16) 제1차 조선교육령(1911), 보통학교 규칙 제2장 10조.
이와 유사한 구절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 보통학교 규칙 제2장 11조와 23조에도 나온다.

상섭이 그 전에 창작하였던 「제야」나 「암야」와 달리, 염상섭이 가벼운 기분으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 서서 사회를 관찰하고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을 조성하는 작품적 수법으로 전환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E선생」은 박종화가 지적한 것처럼 가볍고 통속적인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염상섭 소설의 인물 중 처음으로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맞서서 대결한다.[17]

「E선생」에서 학교는 시험으로 대변되는 규율을 통해 표준화되고 기계화된 인간을 제작하는 장소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E선생은 근대식 학교가 학생들을 표준화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측정 불가능한 인간의 정신과 지식을 수량적인 것으로 환산하게 만드는 '시험'[18]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작문시험의 주제로 '시험'에 대해 서술하게 함으로써, 시험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넘어서려는 모험을 단행한다.

그러나 E선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계몽은 실패로 돌아간 뒤, 그 자리에는 냉소만이 남게 되었다. E선생이 시도했던 계몽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학생과 선생이 함께 학교의 주인이자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선생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선생들은 '평가하는 자', 학생들은 '평가 받는 자'라는 이분법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과 학생은 모두 학교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근대 규율 제도 위에 탑승한 자에 머물게 된다.

---

17) 김종균, 「염상섭 소설의 연대적 고찰」, 『국어국문학』 36, 1967.5, 42~43면.

18)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250면. 시험은 수험자가 규정상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당사자의 기술 습득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보증해 주며, 각 개인의 능력을 세분화해 주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을 통해 측정되어야 하는 개인의 능력을 수량화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작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E선생」보다 8년 뒤에 발표된 「지선생」에는 그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교사상이 등장한다. 'E선생'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19]하는 인물이라면, '지선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술을 마시고, 졸기를 일삼는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등교하지만 그것은 오랜 습관에서 나오는 기능적 행위일 뿐이다. 지선생은 학생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으며, 퇴직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어찌보면 박종화의 "극히 평범하고 통속적인, 한때 웃음 좌석에서 이야기할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는 「E선생」보다는 「지선생」에 더 적합해 보인다.

> 지선생님은 원래 구식 양반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직 망령날 연세도 아니건만) 차차 망령이 심해 갔다. 교실에서 마룻바닥에 침을 탁탁 뱉는 것은 십오 년래의 일이요 그것은 예전에 가래침을 뱉어 붙이던 데에 대면 여간 개량된 것이 아니다.
>
> 지금 세상에 더구나 '남의 학교'에서 침을 탁탁 뱉는 그 기운만은 장하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20]

처음에는 가래침을 턱턱 뱉다가 지금은 그냥 침을 뱉는 것에 대해, 인용문의 서술자는 '개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생이 교실에 침을 뱉는 행위는 '교원심득'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원의 품행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청결과 위생을 추구하는 근대 교육과도 거리가 멀다.[21] 더구나 '남의 학교'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

19) 하정일(1998), 앞의 글, 75면.

20) 염상섭(1987), 앞의 글, 338면.

21) 데버러 럽턴, 『감정적 자아』,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2016, 168~169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가래, 침, 땀, 고름, 오줌, 똥, 정액, 피" 같이 육체화된 경험의 일부인 체액은 대체로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간주되었다. 체액은 문화적 분류체계에 입각해서 볼 때, '내부'에 있어야 할 것이 '외부'로 나온 것, 즉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체액이 '내

것에 대해 서술자가 “그 기운만은 장하다”고 평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긴 어렵다. 지선생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학교, 자신이 행위의 오롯한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에 ‘침’을 뱉음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 공간의 괴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학교라는 근대식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십오 년 동안 가장 먼저 등교한 지선생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는 학교의 규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식민권력에 대한 ‘과잉 동일화’라고 볼 수 있다. ‘과잉 동일화’ 전략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권력체계가 요구하는 것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그 요구에 담겨 있는 부당성이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이다. 지선생은 근대 규율권력의 핵심 장치인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교원에게까지 요구했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기계적으로 따른다. 그럼으로써 학교의 규율에 대한 기계적인 동조가 아무런 의미도 생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선생은 요즘 학생들의 ‘스트라이크’나 ‘만세 부르기’에 대해 그것이 “내가 이 교실에서 침 뱉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에 있니.”라고 말한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듯 보이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학생들의 ‘스트라이크’나 ‘만세 부르기’가 교실에 침을 뱉는 것처럼 의미를 지닐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지선생의 ‘침 뱉기’가 학생들의 ‘스트라이크’나 ‘만세 부르기’처럼 기득권 세력이나 식민권력에 대한 반동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이다. 지선생의 침 뱉기는 늙어 망령이 든 교원의 단순한 비행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제도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규율적 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선생의 침 뱉

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몸의 경계의 침투 가능성, 즉 몸의 본질적 동물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액의 노출은 삶의 방식 자체가 격자화된 틀을 중심으로 규격화되는 근대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는 행위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는 학교로 대변되는 근대식 규율에 대한 복종과 위반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계속한다.

이러한 지선생의 천적은 '고무라'라는 일본인 교무주임이다. 고무라는 "빠각빠각 구둣소리를 내면서 뒷짐을 지고 낭하로 '순경'"을 돌다가 지선생이 조는 모습을 목도하고는 "선생님, 댁에 가서 주무시지요. 여기는 침실이 아니올시다. 하지만 목침 갖다 드릴까요?"라며 무안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지선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지선생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만, 그것이 선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청하기 직전 학생들에게 '묵독'과 '질문'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꾸벅꾸벅' 조는 지선생과 학생과 교원을 감시하기 위해 순경을 도는 고무라가 만들어내는 대비는 학교 안에서 질서를 둘러싸고 길항하는 두 가지 힘을 보여준다.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 조선인 지선생이 '묵독'을 외치는 순간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 규율의 통제가 아니라 자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반면 "일정한 보조로 차츰차츰 가까워" 지는 일본인 교무주임의 '구둣소리'는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규율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지선생의 묵독과 고무라의 구둣소리는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자와 규율을 지키려는 자를 청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금지된 만세와 민족의 징후

「지선생」은 1930년에 발표되었지만 작품 속에 '4년제 시대'[22]의 유물이 등장하고, 학생들의 '만세'가 유행한다는 서술이 나타나는 점

으로 미루어 본다면, 작품의 배경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 나온 직후인 1922~1923년 정도로 추정된다. 3·1운동 이후 '학생'은 하나의 민족적 사회 계층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20년 5월의 조선학생대회와 이를 계승한 1922년 11월 이후의 조선학생회가 학생 계층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성장한 학생들은 1920년대에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23]

이 소설에서도 학생계가 동요하고, 말썽의 주요 분자들을 학교 안에서 색출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학교의 교장과 교무주임은 학교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공기' 및 '불온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 규율을 강화하고, 경찰 당국과의 공조 하에 학생들을 단속한다. 그래서 주요 분자로 낙인찍힌 학생들은 신경이 예민해진 선생들로부터 "엄중한 훈유와 경고"를 받았다. 학교 당국자들과 경찰은 억압적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의 반체제적인 움직임을 제압하려 한다.

> 그날 사무실에 불려 들어간 학생들은 사실 요사이에 학생계에 동요가 있기 때문에 교장과 교무주임이 미리 경계를 하느라고 말썽군일 듯한 주요 분자를 각 반에서 불러다가 엄중한 훈유와 경고를 하였던 것이다. 사실 요사이 학생계에는 어쩐지 수성수성하며 불안한 공기가 만연되어 갔다. 풍설이 여러 가지로 돌기 때문에 그 정곡과 정체를 잡을 수는 없으나 불온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각 학교 당국자들은 경찰 당국만큼 신경들이 과민해졌다.[24]

'학교'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할 수

22)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데 반해,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개정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작품의 배경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된 1922년 이후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3) 조동걸, 『한국계몽주의와 민족교육』, 역사공간, 2010, 253면.

24) 염상섭(1987), 앞의 글, 342~343면.

있는 이유는 학교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의 공고한 위계가 필요하다. 학교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위계를 바탕으로 교육이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공통의 의견을 산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생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정치적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역사적 사건들은 학교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근대적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의감과 열정을 지닌 주체로서 불의에 항거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장소이자, 학생들이 집단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행동들이 다시 공론장을 형성할 수도 있는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학교를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통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선생」에서 '학생계의 동요'를 대하는 학교 측의 대응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억압의 과정이 노골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학생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 통제에 대한 서술 뒤에 지선생은 이 "모든 데에 무관심"한 채 '태평'한 시절을 보낸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 학교 측이 통제하는 장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이제 '만세'를 부르는 학생들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침을 뱉는' 지선생에게로 넘어간다.

이러한 구성은 '민족'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단 하나 남은 조선 선생"을 학생들이 옹호하고 일제에 대항해 만세를 부르는 것이 "시대의 하이칼라"라는 소설의 설정은,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저변에 '민족'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학생들이 지선생에게 애정을 보내는 것과 만세를 부르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처럼 다뤄지고 있지만, 기실 이 둘은 위기에 처한 '민족'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동궤에 놓인다.

염상섭은 「민족, 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1927)에서 지금 조선에서 요구되는 것은 "민족적 일면을 버리지 않는 사회운동, 사회성을 무시하지 않은 민족운동"[25]임을 역설한 바 있다. 당대에 한창 유행하던 계급운동보다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염상섭은 문학 역시 이 문제의식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선생」에는 '문학은 어떤 운동을 그려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다.

> '단 하나 있는 조선 선생'- 이러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관대하게 만들었다. 요사이의 '코뮤니스트'는 그 학생들이 '내셔널리스트'라고 비웃을 것이지만 그런 것은 우리 학생은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다만 솔직하게 양심에서 우러나오는대로 할 뿐이다.[26]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작품의 주요 서술자는 "천학한 학생"인 "우리들"이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지선생이 처한 상황과 학생들이 지선생에게 느끼는 감정 등이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지선생에 대한 '배척운

25) 염상섭, 「민족, 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 이혜령·한기형 편, 『염상섭 문장 전집1』, 소명출판, 2013.
26) 염상섭(1987), 위의 글, 338면.

동'을 한 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존경보다는 "가엾다는 생각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이 이처럼 변한 이유는 그가 "'단 하나 있는 조선 선생'"이기 때문이다.27)

그리고 이런 생각과 감정은 일년생에게까지 "부지불식간에 감화되어" 학교 안에서 하나의 풍조가 된다. 작품 속에서 민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풍조를 만드는 구심력은 지선생이 표상하는 민족의 징후이다. 학생인 서술자들은 '코뮤니스트'들이 자신들을 '내셔널리스트'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지선생을 향한 이들의 행동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념이나 사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민족'은 아직 본격적으로 의식되지도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 즉 '징후'로 기능한다.

이처럼 징후로서의 '민족'을 저변에 깔고 지선생과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은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식민화의 프로세스 속으로 쉽게 포섭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학교 밖에서는 '만세'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학교 안에서는 조선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일본어로 전환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지선생과 학생들의 행위는 '민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기서 지선생의 행동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웃음'이다.

---

27)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2: 연민』,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8장 참조. 사실 학생들이 지선생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는 이유는 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우리는 다만 퇴직 상여금이나 두둑히 드려서 지금의 삭월세 집이나 면하시고 세 끼 궐하시는 때나 없게 되셨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338)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술자인 '우리=학생들'은 지선생에게 '합리적 연민'을 느낀다. '합리적 연민'이란 마사 누스바움이 이야기한 개념으로 '도덕 교육과 공민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고, 이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5. 웃음의 전염과 '종치기'의 역설

웃음은 총체적인 세계와 역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형식 중 하나이다. 또한 웃음은 세계에 대한 특수하고 보편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웃음은 엄숙함과 동일하게 삶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은 오직 웃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28]

그러므로 학생들이 지선생을 놀리면서 다양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식민지라는 조선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웃음이 "역사적·문화적·사회학적·심리학적 토대"와의 상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29]은 학생들과 지선생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제국 일본이 조선인들에 대한 식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문을 일본어로 가르치려고 하는 시기에, 지선생은 학생들로부터 긍정성을 담보한 연민과 애정을 받는다.

그래서 지선생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교무주임은 지선생에게 조롱을 담은 '배척의 웃음(le rire d′ exclusion)'을 보이지만, 학생들은 지선생에게 '환대의 웃음(le rire d′ accueil)'을 건넨다. 전자가 일본인 선생 대 조선인 선생이라는 경쟁관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웃음이라면, 후자는 조선인이라는 연대감에서 발생하는 웃음이다.[30] 지선생은 교무주임에게는 속으로 "고양이 같은 놈이! 요놈!"이라고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의 농담은 "시룽시룽 잘 받아 주는 그런 호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28) 미하일 바흐찐,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최건영 역, 아카넷, 2001, 115면.
29)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23면.
30) 류종영(2005), 위의 책, 28~29면.
뒤프렐(E.Dupéel)은 「웃음의 사회학적 문제」에서 웃음을 '환대의 웃음(le rire d′ accueil)'과 '배척의 웃음(le rire d′ exclusion)'으로 구분했다.

학생이 지선생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민족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선생을 둘러싸고 시끌벅적한 홍소(哄笑)가 전염된다.

이처럼 웃음은 사회적인 행동 양식이다. 웃음이 지닌 유용한 기능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며, 웃음은 공통적인 삶의 어떤 필요에 부응한다.[31] 그리고 웃음은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친밀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상에 대해 호의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애정 어린 웃음이 나오는 반면, 대상에 대한 거리감과 불편함은 조소, 냉소, 비소 등 적대적인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선생」에 등장하는 웃음이 지닌 상대적인 성격과 등장인물 간에 작동하는 웃음의 역학을 분석하는 작업은 순응과 저항, 협력과 비협력, 친밀과 격조 등 대립되는 행위나 감정의 유형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선생과 학생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이 소설을 웃음을 매개로 살펴보는 본고의 작업은 이 지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염상섭은 「지선생」에서 독특한 교원의 형상을 통해 학교에서 식민화 프로세스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다. 식민지 시기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의 '지(智)·덕(德)·체(體)'를 기르는 것이었지만,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은 그 목표와는 무관하게, 때로는 그 목표와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염상섭이 그려내는 것 역시 「E선생」에서처럼 학교에서 계몽이 실패하는 모습이거나, 「지선생」에서처럼 조선인 교원과 학생들의 반규율적인 행위와 웃음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농담, 유머, 재치 등으로 요약되는 웃음의 미학은 '진지한 성찰, 문학과 현실에 대한 치열한 사유, 진정성' 등과는 확연히

31)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세계사, 1992, 16면.

대별되는 미학적 가치로 평가되었다.[32] 하지만 염상섭이 그려내는 웃음은 현실에 대한 치열한 사유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현실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구현한다. 염상섭은 「지선생」에서 식민화의 대표적인 장치인 학교의 기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웃음들을 통해 학교와 선생, 선생과 선생, 학생와 선생 사이에 존재하는 어긋남들을 보여준다.

분열된 주체를 넘어서고, 이념과 현실의 간극을 넘어서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힘인 웃음은 부정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염상섭이 「지선생」에서 중점적으로 그려내는 지선생을 향한 학생들의 웃음은 화해와 굴종이 아니라 비관을 넘어서는 힘이다.[33] 이 웃음은 식민권력이 학교 안에서 조선인 학생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식민화 전략에 저항하면서 현실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백미는 결말 부분에서 지선생이 시간을 착각하고 학교의 "종을 땅땅-땅땅" 치는 장면이다. 짓궂은 학생이 지선생이 자는 동안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지선생은 시간을 착각하고 사환 아이 대신에 수업을 마치는 종을 울린다. 원래 시간보다 일찍 종소리가 나면서 학교는 소란스러워지고, 사환아이는 지선생에게 아직 수업 시간이 남았는데 "이 종을 치시면 어쩝니까!"라며 원망 섞인 말을 전한다.

> 지선생님은 '그놈이 날모양으로 졸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로 운동장으로 난 유리창을 열고 거기에 달린 종을 땅땅-땅땅 치셨다.[34]

32) 정은경, 「저항 혹은 투항의 책략으로서의 웃음-조각난 '웃음'에 관한 '조각난' 이야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8.11, 62면.
33) 정은경(2008), 위의 글, 68~69면.
34) 염상섭(1987), 앞의 글, 344면.

규율의 공간인 학교에서 십오 년이나 근속을 했지만 그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지선생은, 마지막 장면에서 잘못된 시간에 종을 침으로써만 학교의 체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태에 놓인다. 잠에서 덜 깨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만이 단속과 통제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표준화하고 기계화하는 학교 체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그러므로 이 일을 꾸민 학생들이 "무심코 마주들 보며 웃"는 행위는 의미심장하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선생을 놀리기 위해 꾸민 이 일은 지선생이 규율을 깨는 방식으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흐친은 웃음의 '역사-알레고리적 방법'을 서술하면서 웃음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져 웃음이 보편성을 잃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본래 웃음은 전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 평균적인 것, 보통의 것, 그리고 일상 풍속적인 것들과 유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리얼리즘과 연동되는 '역사-알레고리적 방법'이 시작되면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개성은 더 이상 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신에 웃음은 개인적인 조롱이나 풍자와 유착하여, 사적(私的)으로 단 한 사람만을 향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것이 부재하는 곳에서, 웃음은 특정한 현실의 인물을 겨냥한다.[35]

지선생은 바흐친이 이야기하는 "특정한 현실의 인물"로도 읽을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그는 당대의 전형적·일반적·평균적 인물이 아니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풍속들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는 특정한 인물로서 개인적인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가장 먼저 등교하는 그의 태도는 규율 주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반규율적이며 이 행위는 교원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버린다.

지선생은 학교의 체제와 당국자들이 교원에게 기대하는 바, 즉 규

35) 미하일 바흐찐(2001), 앞의 책, 185면.

율을 내면화하여 기계적이 된 모습을 거부한다. 민첩한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경화(硬化)"는 웃음의 동인이 된다.[36] 하지만 웃음은 그 반대의 상황, 즉 '기계적인 경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도 발생한다. 「지선생」에서 발견되는 것은 후자의 웃음이다. 규율을 매개로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만들려는 식민지 조선의 학교에서 지선생은 규율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반복한다.

근대식 학교는 시험을 위시한 규율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기계처럼 만드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 기계화를 이끄는 규율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웃음'이다. 표준화와 규격화에 맞서 학생들에게 융통성과 유연성을 돌려주기 위해 웃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웃음이 학생들에게 전염될 때 학생들을 기계처럼 만들려는 학교의 규율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한다. 또한 학생들의 장난에서 시작된 지선생의 '종치기'는 근대의 시간을 구성원들의 신체에 각인시켰던 학교의 시스템을 일시적이나마 정지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36) 앙리 베르그송(1992), 앞의 책, 18면.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염상섭, 「지선생」, 『염상섭 전집9- 초기단편』, 민음사, 1987.

이혜령 · 한기형 편, 『염상섭 문장 전집1』, 소명출판, 2013.

———, 『염상섭 문장 전집2』, 소명출판, 2013.

2. 단행본

김경자 · 김민경 · 김인전 · 이경진, 『한국 근대초등교육의 좌절-일제강점기 초등교육』, 교육과학사, 2005.

김윤식, 『염상섭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진균 · 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데버러 럽턴, 『감정적 자아』,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2016.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2: 연민』,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미하일 바흐찐,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 최건영 역, 아카넷, 2001.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세계사, 1992.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마니스트, 2005.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조동걸, 『한국계몽주의와 민족교육』, 역사공간, 2010.

3. 논문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4, 21～23면.

김종균, 「염상섭의 1930년대 단편소설」, 『국어국문학』 77, 1978.6, 194～195면.

박혜진, 「1910 ·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17면.

우사미 내무부장관, 「교원심득에 대하여(1-9)」, 『매일신보』, 1916.1.16-26.

정은경, 「저항 혹은 투항의 책략으로서의 웃음-조각난 '웃음'에 관한 '조각난' 이야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8.11, 62면.

조윤정, 「이태준 소설에 재현된 식민지 조선의 학교」, 『상허학보』 28, 2010.2, 11～52면.

최지현, 「근대소설에 나타난 학교- 이태준, 김남천, 심훈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複數)의 근대'」,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75면.

함일돈(咸逸敦), 「창작계의 이삼고찰-최근 일년간의 작품과 작가3」, 『동아일보』, 1931.2.1.

<Abstract>

A Device Called School & Dynamics of Laughter Centered on 「Ji Seonsaeng」, by Yeom Sang-Seop-

Hwang, Ji-Young

This paper analyzes 「Ji Seonsaeng」 by Yeom Sang-Seop published in 1930 and examines regulations for Joseon students by school and Ji Seonsaeng who observes the rules and at the same time escapes from them. This work is against a background of the period when students were conducting the independence movements and Joseon teachers were gradually being kicked out from school. In such a period, Ji Seonsaeng spits on the floor of the classroom, dozing during class habitually after drinking. Nonetheless, students express affection for and sympathy with Ji Seonsaeng, a last Joseon teacher who was left at school. Ji Seonsaeng, sincere enough to go to work before anyone else but deviant from regulations at school, also functions both evoking a laugh and destroying regulations. The reason why Ji Seonsaeng, seemingly inactive may have significance is that laughter derived from such an image has a possibility of resistance and solidarity.

Key words: Yeom Sang-Seop, Ji Seonsaeng, School Regulation, Resistance of Laughter, Emotional Infection

투 고 일 : 2017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